



9면

무주 최초 복합문화시설 탄생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음 4월 23일) 제35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관영 도지사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이란 슬로건으로 시·군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진안을 찾아 군청에서 전춘성 군수와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김 지사 “진안, 치유힐링 1번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시·군 방문 - 진안
군민과의 대화서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등 의견 청취
진안고원시장 찾아 상인들과 대화·지역 사회단체장과 오찬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생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기 위해 시·군 방문길에 오른 김관영 도지사가 29일 진안군을 방문했다.
지난 2일 익산, 13일 고창, 14일 무주에 이어 네 번째 방문지로 진안을 찾은 김 지사는 군의회, 언론인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군청 강당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진안군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도정 철학과 계획을 직접 전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재정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도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주민들은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

화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지원,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산업기계교육관 분원 건립,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군 역량을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오늘 이곳에서 나온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그 토대라는 생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군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 지사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과 시설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에게 직접 식사를 배식했다.
김 지사는 또 진안고원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상인들을 만

나 의견을 청취한 뒤 청년들에서 진안군 사회단체장과 오찬을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전춘성 군수는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김관영 지사님의 방문을 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자치도의 도정에 진안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원도시 진안군은 숲과 계곡, 홍삼, 용담호 등 치유힐링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인구감소,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바이오 생태계 조성 본격화

전북자치도,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
산·학·연·병·관 바이오산업 육성 ‘구심점’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발표·전문가 세미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바이오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이 되기 위한 산학연병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기술 확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산·학·연·병·관 바이오산업 육성의 구심점인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김관영 도지사,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양지훈 (주)넥스트바이오 대표, 장준호 (주)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사, 김홍중 (주)인헨스드바이오 대표, 박갑주 (주)레드진 대표, 김용철 (주)데일리파트너스 부부장, 손미경 (주)젠엑시스 대표, 이정상 HLB 테라퓨틱스 이사, 최용호 하림 상무, 안재형 한국멤벨 이사 등을 비롯해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지역 대학, 삼급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바이오산업 육성의 선순환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또 이날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계획 발표와 안토넬라 모타 이탈리아 트랜스대학 교수, 루이 L. 레이스 포르투갈 I3Bs 리서치그룹 회장 등 글로벌 석학들의 축하 영상 상영, 출범식 세레모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는 산업부서에서 공모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영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구성했으며, 출범식을 기점으로 산·학·연·병·관 협력을 통한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향후 전북자치도의 R&D, 성장사다리 지원, 바이오 펀드, 인센티브 등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민간이 혁신 역량을 제 때 발휘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병·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6개 분과를 구성, 산업육성 및 지원, 기술혁신 및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교육,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 기획 등을 통해 바이오 산업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 후 이어진 글로벌 바이오 전문가 세미나에서 넥스트앤바이오 양지훈 대표는 ‘전북 오가노이드 산업 활성화 방안’, △웨이코프레스트 이상진 교수는 ‘웨이코 포레스트 전북기업 연계방안’, △허버드 의대 최학수 교수는 ‘바이오 제조혁신을 위한 산학연 병관 연구협력 방안’ 등에 대해 각각 강연이 펼쳐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은 국내·외를 넘어 해외까지 아우르는 산업계, 학계, 병원 등이 한마음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명경제 도시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며,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바이오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당신의 기억, 전북의 기록 되다’

전북자치도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의 기록물을 찾아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당신의 기억,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록이 되다’라는 주제로 전북지역의 역사적·행정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수집한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자치도, 7월 12일까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누구나 참여 가능... 수집대상은 전북의 역사 등 관련

주요 행사, 역사, 마을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문서(책자, 수첩, 상장), 시청각(사진, 필름, 앨범), 박물(우표, 신분증, 생활용품) 등으로 과거의 실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이면 된다.
공모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도청 총무과로 방문 및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기록물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3명의 심사자를 선정해 7~8월 중에 발표하고, 입상자에게 10만

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논누리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수집된 기록물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호연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민간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행정적 가치가 높은 도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기록유산으로 보존하고자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실시한다”며, “기록물의 수집과 전시를 통해 역사와 기록의 고장인 전북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성장사다리 신규 기업 53개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전북테크노파크가 2024년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53개사를 신규 선정했다.
올해는 168개 기업이 신청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돌음기업 23개사, 도약기업 15개사, 선도기업 15개사 등 총 53개사가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1~3단계 중소기업에 총 94억원을 투자해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돌음·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정 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형 교육,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등을 지원받는다.
선도기업 선정 기업은 지정 기간 5년 동안 기술개발(R&D),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받는다./이만호 기자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4

2024. 6. 5. - 6. 9.

www.mjff.or.kr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후원기관
전주 MDC
한글서체문화진흥원
무주산골문화재단
무주특별자치도